

‘안전·안심’ 일본 추고쿠 지방에 와주십시오.

이번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세계 각국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영향에 따른 우려와 각국(지역)정부의 도항자제권고 등에 의한 방일관광 취소 및 전세기편 증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고쿠 지방은 서일본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진의 피해는 물론 우려할만 할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추고쿠 지방 각 지역과 해외를 잇는 정기항공편, 정기화객선도 통상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고쿠 지방 각 현의 관광지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관광을 통해 ‘일본의 활력’ 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 추고쿠 지방에 오신다면 일본국민에게 힘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또한, 하루 빨리 일본의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추고쿠 지방에 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
추고쿠지역발전추진회의

돗토리현 지사 히라이 신지
시마네현 지사 미조구치 겐베에
오카야마현 지사 이시이 마사히로
히로시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
야마구치현 지사 니이 세키나리
추고쿠 경제연합회 회장 후쿠다 타다시
돗토리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시미즈 테루미츠
시마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미야자키 아키라
오카야마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오카자키 아키라
히로시마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후카야마 히데키
야마구치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하야시 코스케